



교 문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개교 49
경희대학교 1949-1998

1998년 5월 25일 (월요일)

THE DAEHAK-JUBO

제1148호 1

□ 기획취재 - 학내 상행위의 문제점을 점검한다

학내 상행위 허용선 분명히 하라

가입 해약사태 등 부작용 발생, 판매행사 유치 신중해야



▲모 기업이 지난 축제기간 중 서울캠퍼스 노천극장 주변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젊음의 한때, 젊음의 장소엔 스피드 011’, ‘박세리 뽀빠, 무료로 가져가세요’. 요즘 언제라도 캠퍼스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광고 문구이다.

이러한 광고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양이나 종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대학 내에서도 수많은 형태의 소비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 단대의 매점이나 학생 식당, 학교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까지. 모두 대학이 소비 집단임을 입증하는 것들이다.

학내에서 접할 수 있는 소비상품은 흔히 세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하나는 학내 고정 매장에서 장기간 동안 판매되는 상품이고, 또 하나는 일정 기간이 단기간 임시 판매 장소를 세우고 특별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상품, 다른 하나는 학내 각종 자판기를 통해 판매되는 상품이다.

이 세가지 모두 양 캠퍼스 학생인권 복지위원회(인복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임시 특판의 경우, 때때로 노동조합이 관할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처럼 관리 부서가 확실하고 해서 학내 판매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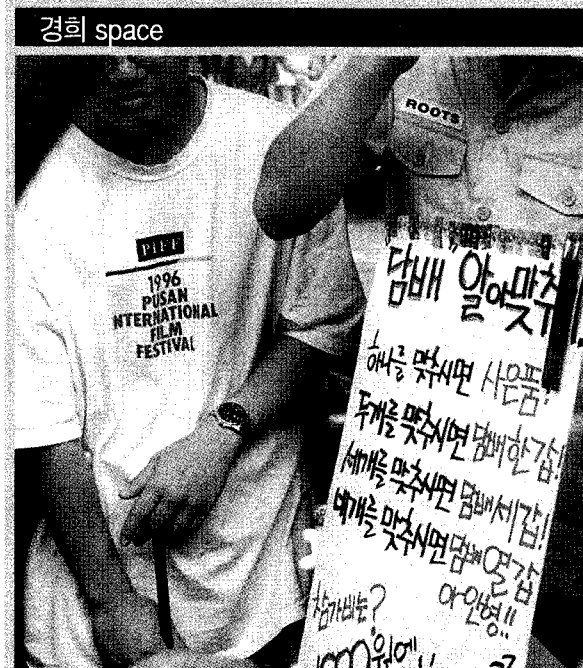
실제로 지난 3월 중순, 서울캠퍼스에서 흥보 및 넷츠고 가입신청을 받았던 SK텔레콤의 경우, 현재 당시 접수 학생들로부터 해약 신청을 받느라 정신이 없다.

내용인 즉, 신청 당시 15일 무료이용에 대한 설명만 듣고 15일 후 해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가입된다는 규약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학생들이

이 집으로 날아온 고지서를 받고 여러 동절해 해약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다행히 관계 업체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의 해약 요구 및 발급된 청구서의 해지를 허용하고는 있다.

그러나 “가입신청자 수에 비해 현재 해약을 신청해 오고 있는 학생 수가 극히 적어 현재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해약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는 강국희(SK텔레콤 경희점)씨의 말처럼 계속해서 정보 사용 고지서를 받아보게 될 학생들이 아직 많다는 점과 그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학생들의 피해도 증가한다는 점이 다른 문제로 지적된다.

〈2면으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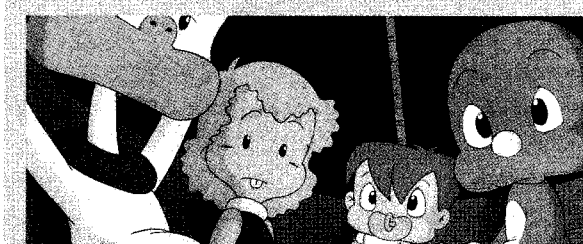


양심을 팔아서라도

축제 기간 중 학내에서 벌어진 ‘노름판’을 찾기란 어렵지 않았다. 동전 던지기, 담배 이름 맞추기, 고리 던지기 등 종류도 다양한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에도 충분했던 학내 ‘노름판’. 또래 학생들의 돈이라도 모아야 할만큼 시급한 용무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지면안내

- 3 지역·의료원
- 4 학기동 거리 문화제
- 4 시사
- 4 6·4 지방선거를 맞아
- 5 사회
- 5 6월유기 풍전동학의 한국사학
- 7 예술
- 7 시민정보사회 발전 위한 정책방향
- 8 문화
- 8 문학산업 위기 극복방안



이 주의 Focus

수강신청

98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또다시 전쟁이다. 분명 학교측은 전체 학생수를 고려해 교양과목을 개설해 두었을 텐데 학생들은 시도 때도 없이 ‘수강인원 초과’라는 문구를 만나게 된다. 수업과에 따르면 지난 학기만 해도 수강신청시 전 학점을 교양과목으로 채웠다가 1주일간 수업을 들어보고 취사 선택한 후 정정한 학생이 태반이라고 한다.

한 학기 동안 수강할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얻은 선택의 결과 또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취재부〉

사상

수습기자

- 김주애(지리학과1)
- 서해동(정경대 경영학부1)
- 이재학(불교문화학과1)
- 김상학(중어중문학과1)
- 이승재(서양학부1)
- 김지영(사회대 경영학부1)
- 채민선(사회대 경영학부1)
- 이광호(자연과학부1)
- 김낙연(생명과학산업공학부1)
- 류효명(생명자원과학부1)
- 윤보훈(생명자원과학부1)

- 이상 5월 25일자 -

대/학/주/보/사

사 고

개교50주년기념 엽서·표어 응모작 심사결과

1. 응모작 작품수 (표어) 38편 (엽서) 124편
2. 당선작 (표어) 없음 (엽서) 없음
3. 가작 (표어) 김창진(전남 무안 초당대학교 교양과 교수, 국문박사) “한국에 솟은 경희 50년 세계에 펼칠 미래 50년” 이관식(외국대 교양과 교수) “함께 된 오십년 화합으로 경희 백년”
- (엽서) 김수진(산업디자인과 4년) 김덕용(산업디자인과 4년) 김난주(산업디자인과 4년)
4. 시상식: 6월초 총장실(임정호)은 별도 임상에게 통보함

개교50주년 기념사업회

98 봄 대동제, 학생 중심 행사 돋보여

학내 불법 행사, 주점 중심 축제 문화 문제점으로 지적

농구부의 날

지난 19일 서울캠퍼스 체육관에서는 우리학교 ‘농구부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다.

오후 4시 30분 현역 선수 대 졸업 선수의 농구 경기에 이어 오후 6시 30분에는 선동호에서 ‘농구인의 밤’을 가졌다.

지난달 20일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 우승을 기념하고자 기획된 이날 행사에는 최부영 감독, 한태희 코치를 비롯 현역 선수들과 SK의 안준호 감독과 삼성의 이청수 선수, 나산 김영주 선수 등 우리 학교 농구부 출신 선수들이 대거 참석했다.

수원 예비군 훈련기간 변경

수원캠퍼스 예비군 훈련기간이 6월 5일부터 15일까지(토·일요일 제외)로 변경되었다.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로 예정되었던 예비군 훈련은 지방자치제 선거가 6월 4일 실시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연기되었다.

향토예비군법은 국가차원에서 치르게 되는 선거의 15일 이내에는 모든 군부대에서의 집회와 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은 학내 기말고사와 훈련기간이 겹치게 되어 훈련이 야기될 전망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기말고사의 전공시험과 훈련기간이 겹치는 경우에 한해 과대표나 각 과 예비과대표를 통해 연대본부에 연락을 하여 훈련기간을 변경할 수 있게 하였다.

단, 복사전공이나 부전공의 시험 등의 경우 개별적으로 연대본부에 연락해야 한다.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양 캠퍼스에서 열린 이번 대동제는 학생들에게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최대의 활동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중앙 집중적 대동제보다는 좋은 평을 받았다.

대동제를 준비한 서울캠퍼스 이준혁(한외94) 부총학생회장은 “기존에 총학생회 중심으로 펼쳐온 행사를 지양하고 규모는 작되 다양한 행사를 선보이려고 했다”며 이번 대동제의 기획의도를 밝혔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동아리들의 발표회 ‘내비퀴?’, 각 단대나 학과별 장기자랑의 마당 ‘짐장다리 문화제’ 등은 가장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고, 수원캠퍼스는 20일을 ‘과·학부의 날’, 21일을 ‘단대 학생회의 날’, 22일을 ‘총학생회와 동문의 날’로 지정해 학생들의 단 계적인 화합을 꾀한 것이 좋은 평을 받았다.



▲서울캠퍼스 대동제 개막 모습

했다. 그런가 하면 수원캠퍼스의 경우, 올해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주점 중심의 축제 문화가 만연했으나 주점 가운데 대부분이 주점 운영 수익금의 용도를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더군다나 무분별한 호객 행위까지 학내에서 벌어져 행해 일부 학생들로부터 “학생들이 단순히

상업적 이득만을 위해 주점을 운영 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캠퍼스 곳곳에 들어선 불법 행사는 축제 기간 중 혼란을 가중시키고, 서울캠퍼스 일부 행사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기도 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강남이 김은택 기자〉

98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서울 30일, 수원 6월 12일까지

수업과는 98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일정을 발표했다. 서울캠퍼스는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학년 구분없이 수강 신청할 수 있다.

수원캠퍼스는 오는 26일부터 6월 12일까지로 각 학년별 신청기간이 주어진다. 학년별 신청기간은 1학년은 3월과 4월, 2학년은 9월과 10월, 3학년은 5월부터 8월까지, 4학년은 6월 1일과 2일이다. 신청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며, 수강신청 정정은 서울캠퍼스의 경우 개강 이후 기간을 발표해 예정이며, 수원 캠퍼스는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정정이 가능하다.

복학생은 서울캠퍼스는 등록기간에, 수원캠퍼스는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경영대학원내 ‘브랜딩 전략 전공’ 신설

가을 학기 강좌개설 사례 중심 강의 계획

경영대학원(원장:이근수 교수)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학원 내에 ‘브랜딩 전략 전공’을 개설했다.

또한 경영대학원은 지난 1일, 국제적 브랜드 전략가로 활동중인 인터브랜드 김성제(경영학 박사, 브랜딩 전략 전공) 대표이사를 겸임 교수로 초빙, 이 과정에 대한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고 있다.

평교원 조국여름학교

평생교육원(평교원)은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98 나의 조국 여름학교 프로그램 MSP(Motherland Summer School Program)를 실시한다.

재외교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 민족의 우수한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발전된 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은 평교원에서 할 예정이며 교내 기숙사와 실악산 숙소에서 한 국어 기초와 한국어교육 일정 등이 진행된다.

‘연극을 통한 한국어 교실’이라는 부제의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 뉴욕, 미주 본사 등에서 주최하며 이 행사로 우리학교의 직·간접적 홍보가 기대된다.

인 분위기와 맞지 않을 뿐더러 항상 새로운 대학문화를 창조하는 무대로서의 대중제 취지와도 거리가 있다.

도박성 놀이는 대중제 주최인 총학생회측과의 협의가 없이 진행되다보니 장소 배정을 받지 못해 학내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관을 벌였고 이미 장소를 배정받은 다른 단체와의 마찰도 유발했다.

또한 각 과가 마련한 명분없는 주점들은 학생들의 소비문화를 조장할 뿐이었으며, 무분별한 호객행위로 건전한 대중 놀이문화를 즐기려는 많은 학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대중제에 참가했던 서영환(경제통상 97)군은 “대학교 축제에까지 이러한 놀이가 관을 친다는 것이 보기 흉하다”라며 총학생회측의 단속을 아쉬워했다.

이에 양캠퍼스 총학생회는 대중제 기간중 자체 단속을

실시하는 등 사행성 놀이 문화에 대한 규제를 나름대로 실시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번 일은 도박성 놀이를 벌였던 학생 및 외부 단체와, 행사관리를 맡은 총학생회측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수요 없이 공급이 따르지 않듯이 대중제 기간에는 도박성 놀이와 술판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일부 학생들의 그릇된 의식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모든 거품을 제거하는 구조조정 단계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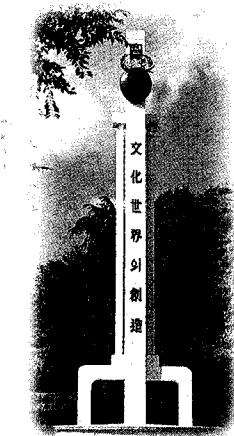
따라서 이제는 대중제도 본래의 뜻을 흐리는 그릇된 ‘거품’은 제거되고 진정한 대중의 의미를 일깨우는 대중제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대중제는 대학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는 축제이지 일부 ‘장사꾼’이 한 몫 잡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송준우 기자〉

한 몫 잡이 대중제

지난 주 양 캠퍼스에서는 대중제가 열렸다.

그러나 건전한 학생 문화로 꾸며져야 할 자리에 도박성 놀이의 호객 행위가 만연했다. 물론 도박성 놀이는 대중제의 감초 역할을 해오기는 했다.

그러나 학내외적인 분위기와 이번 대중제에서의 부작용을 살펴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담배 많이 피우기, 과자 빨리 먹기 등의 놀이에서 상품을 다루는 모습은 사행성 놀이를 추방하지는 사회적



교시람